

컬렉티브는 곧 학교다

MG 프링고토노

앙가 위자야

Collective Is School

MG Pringgtono

Angga Wijaya

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 도시의 곳곳에서는 학생 운동과 예술 행동주의가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활동은 부패한 정권을 개혁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조건을 만들고자 했던 정신에서 시작했다. 당시 체제가 뒤집히고 난 후, 기존의 체제에 저항하고자 했던 열정은 새로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들은 독립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찾고 기회를 만들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내 예술 운동의 주요한 특징이 되었다. 루앙루파(Ruangrupa)는 당시의 긴장과 열정 속에서 탄생했다. 2000년대에는 여러 명의 예술가 집단이 시작한 대안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희열 속에서 예술가들의 집단이 바이러스처럼 많아졌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서로 연대하고자 했다. 루앙 메스 56(Ruang Mes 56)(죽자카르타, 2002), 커먼룸(Common Room)(반둥, 2003), 포럼 렌텅(Forum Lenteng)(자카르타, 2003), 템복 bom벨(Tembok Bomber)(자카르타, 2004), 세룸(Serrum)(자카르타, 2006), 야티왕기 예술공장(Jatiwangi Art Factory)(마잘렝카, 2006) 등을 포함한 몇몇 예술가 집단이 그 형태를 따랐다.

이 대안공간과 예술가 조직 모델은 사회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사회의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예술적 실천과 담론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예술 실천은 독립적으로 일어났고, 이들은 기존의 예술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예술가 조직과 그룹의 활동 범위는 단순한 기능적 범주를 벗어난다. 이는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잘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구성하면서 작가들이 강력한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은 전시, 워크숍, 축제,

예술가 프로모션, 토론, 출판, 필름과 비디오 스크리닝, 웹사이트 제작, 아카이브 및 연구를 아우르며 활동한다.

루앙루파는 도시의 맥락을 중심으로 확장된 문화적 영역에 대한 예술적 담론이 발전하도록 격려하는데 집중했다. 루앙루파는 2008년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조직’ 활동 방식 중 몇 가지를 바꾸었다. 하나는 후원과 홍보 부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 부서는 특별히 자카르타의 문화적 주체 양성을 후원하기 위한 루앙루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계획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몇몇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는 그저 ‘대안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특히 자카르타의 예술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요소를 지지하기 위함이었다.

인도네시아의 예술 학교는 많은 작가를 키운다. 그러나 큐레이터, 비평가, 예술 연구가와 같은 역할을 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동시에 글로벌 예술 현장은 다학제적인 작업에 관해 이야기하기 바쁘다. 이런 이유에서 루앙루파는 큐레토리얼 워크숍, 예술, 시각 문화에 대한 비평적 글쓰기 워크숍을 기획했다. 프로젝트는 2주에 걸쳐 진행되는 강연이었으며, 인도네시아의 동시대 미술이나 문화 현장의 전문가가 이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간 학교에서 길러내지 않았던, 우리의 예술 생태계에 필요한 역할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 강연 프로그램은 루앙루파에게 있어 집단적인 활동이 배움의 장 / 교육의 플랫폼을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이 계획은 2015년에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루앙루파 학교(Institut Ruangrupa)라는 별개의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우리가 설정한 가장 고차원적인 목적은 개인으로서든지 집단으로서든지, 우리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방법, 우리의 언어화되지 않았던 지식을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같은 관심이 있던 세룸은 2014년, 예술 교육 실천과 관련된 쟁점을 탐구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세룸의 모든 구성원은 교육학을 전공했다. 교육의 맥락은 항상 커리큘럼, 정책, 체계의 구조를 맴도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술적 접근, 창의성, 예술적 참여와 영감의 영역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우리가 이끌었던 몇몇 활동의 종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실험실을 우리의 예술적 접근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이것은 학생, 교사, 에듀케이터, 이해관계자, 일반 관객을 포함한 각기 다른 교육 실천가들과 협업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파사르 일무(Pasar Ilmu)’ 혹은 ‘지식 시장’이라고 불렀던, 세룸의 방법론 중 하나는 어떻게 배움의 체계가 사람들의 필요와 요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도구였다. 파사르 일무를 통해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맞는 장소로서 시장의 형태를 가져오고자 했으며 지식 교환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자 했다. 우리는 또한 수업이 끝나고 난 후 이들의 교환이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식을 고민했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사회 안의 새로운 결합을 만들 수 있다. 지식 시장은 모든 사람이 선생과 학생이 될 기회를 준다. 이 과정에서 평등함은 중심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지식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이 방법론을 통해 우리는 컬렉티브가 곧 학교라고 생각한다. 컬렉티브로 같이 일하는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뿐만 아니라 이 컬렉티브에 참여한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 위한 배움의 공간이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식이 지속될 수 있을까? 미래에도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생태계로서 서로를 연결하는 잠재력은 어떤 것일까?

2016년의 마지막에 포럼 렌텅, 그래픽스 후루 하라(Grafis Huru Hara), 루앙루파, 세룸은 공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6,000 m²의, 거대한 크기의 창고 공간을 새로 얻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프로그램과 성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하나의 독립체로서 활동하도록 서로 도전한다. 우리는 공공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같은 열정을 공유한다. 이 경험에서 우리의 예술적 실천에 맞는 다른 모델을 발전시켰다. 우리는 그것을 에코시스템(Ecosystem)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풍부함과 우리 공간 안에 존재했던 지식과 기능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선부르지만 같은 환경 안에 사는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이사하게 됐다. 이번에는 우리가 땅을 같이 얻었고,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조성할 다른 가능성을 열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와 유사한 실천에 관심이 있는 모두를 위한 지식 공유 플랫폼을 계획했다. 그리고 ‘굿스쿨: 동시대 미술 컬렉티브 연구 및 생태계(Gudskul: Studi Kolektif dan Ekosistem Seni Rupa Kontemporer)’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사람들, 프로그램, 하드웨어, 시간, 자본처럼 컬렉티브 안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우리는 참가자들이 컬렉티브로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정기적인 1년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굿스쿨은 면대면 만남, 작업실 내 활동, 현장 답사, 인턴십,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우리의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실험적인 배움의 과정 시리즈를 반영한다.

참가자는 공개 지원 과정을 통해 선택된다. 참가자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내고 컬렉티브 활동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몇몇 질문을 포함하여 지원서를 작성한다. 이후 우리는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 세션에 30명의 지원자가 신청했으며 자카르타, 마잘렝카, 반둥, 보고르, 브카시, 메단, 폰티아낙, 수라바야, 마카사르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지원한 15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비영리 활동 모델로 개발하고, 이후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자원이 저장되고 각 집단이 각자 다른 분량의 필요에 따라 이 자원이 분배될 수 있게 하는 ‘룸붕(lumbung, 쌀 곳간)’ 경제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재정적 계획을 수립했다. 기금, 프로그램, 장비, 심지어 책까지 각 컬렉티브에서 가져온 자원을 모으고 생태계 안의 각 컬렉티브에게 재배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플랫폼은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집단 활동의 체계와 같은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여전히 생태계의 구조를 가지고 간다. 예술적 교류, 레지던시, 심포지엄, 지속 가능한 컬렉티브의 경제 모델의 발전을 통해 우리 컬렉티브 활동안에 있는 네트워크의 활력이라는 자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컬렉티브에서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굿스쿨 프로그램의 기획 아래 이 프로그램 중 몇몇을 통합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굿스쿨은 또한 우리 컬렉티브의 ‘멤버십’에 대한 질문에 좋은 해답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지만 우리에게는 ‘멤버십’과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우리는 이를 ‘농크롱(nongkrong)’이라 부른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헌신한다. 에코시스템에서 이뤄지는 우리의 프로그램에 참가자들과 함께 하면서 농크롱의 시간과 가치를 시험해볼 수 있다. 더 큰 ‘생태계’의 일원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말이다.

변화의 각 단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새로운 역할, 기능, 성격,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찾고자 노력했는지 알게 됐다. 우리 컬렉티브의 활동에는 언제나 배움과 나눔의 정신이 있었다. 서로 경쟁하기를 중용하는 현대적인 ‘학교’의 개념을 따라가는 대신에 배움 활동의 기반으로서 컬렉티브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은 함께함과 협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MG 프링고토노
굿스쿨 디렉터

MG 프링고토노는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술집단인 세룸의 설립자다. 예술가로서, MG는 국내외 많은 전시와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코펜하겐에서 진행한 «슈퍼 대니쉬 판타지(Super Danish Fantasy)»,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에서 진행했던 «OK. 비디오: 뉴 오더»에 참여했다. 2016년에는 『템포』 매거진으로부터 ‘템포 메트로 피겨 2016’상을 받았다. 현재 그는 굿스쿨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도시적인 생태학에서 실제적인 이슈에서 활동하고 있는 «STUFFO / Lab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양가 위자야
굿스쿨 서브젝트 코디네이터

양가 위자야는 교육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세룸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세룸은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작업을 통해 예술과 교육 연구실을 만드는 단체로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아이디어와 예술적 평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굿스쿨에서 양가는 컬렉티브 미술 수행을 개발하며 컬렉티브 아트 리뷰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양가는 또한 사회 및 문화 영역 전반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성격의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round the late 90s there were a lot of student movements and art activism that emerged in certain parts of Indonesia cities. These activities were led by the spirit to reform the corrupt government and create spaces and conditions trying to produce and distribute knowledge. After the regime was overthrown, the enthusiasm for resisting what was already ‘established’ found a new form and created opportunities independently, which continued to b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art movement in Indonesia. Ruangrupa started during that period of tension and passion. Around the year 2000, alternative art spaces emerged which were initiated by groups of artists. In democratic euphoria, groups of artists multiplied to spread like a virus, and their value was to inspire one another, build networks, and connect with one another. The artist group model was followed by several artists’ groups later on, such Ruang Mes 56 (Jogja, 2002), Common Room (Bandung, 2003), Forum Lenteng (Jakarta, 2003), Tembok Bomber (Jakarta, 2004), Serrum (Jakarta, 2006), Jatiwangi Art Factory (Majalengka, 2006), and many more.

This model of alternative space and artists’ organizations was an effort taken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and also to make progress on artistic practice and discourse, which could be more relevant and immediately involved with the reality in society. Such art practices were placed independently and were not too concerned about the existence of the previous art infrastructure. The work territory of these artists’ organizations or groups then spread across a range of functions, not only restricted to producing artistic works, but also helping them have strong social functions through their programs and activities with a strong public awareness. The range of activities includes exhibitions, workshops, festivals, artists’ promotions,

discussions, publications, film and video screenings, websites, archiving, and research.

Ruangrupa has given attention to encourage progress of art discourses in an urban context and extensive cultural sphere. When moving to its new location in 2008, Ruangrupa made several changes in its 'organization' workflow. One was forming a special unit for Support and Promotion. This division aimed specifically to prepare and develop programs carried out by Ruangrupa in order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gents in Jakarta. Several programs were carried out to fulfill the plan; the consideration at that point was not just about being 'alternative' but also to support different elements in the art ecosystem, especially in Jakarta.

Art schools in Indonesia produce many artists, but rarely consider or present other supporting roles such as curators, critics, or art researchers. Meanwhile, the global art world at that time was busy talking about cross-disciplinary work. For this reason, then, Ruangrupa designed curatorial workshops and critical writing workshops on art and visual culture. The project took the form of a two-week lecture course that was led by professionals from the contemporary arts and culture scene in Indonesia. This program tried to fill a role in our arts ecosystem that had not been taken up by art schools.

The lecture course became an example for us in Ruangrupa to see collectivism as a way to create a learning site/educational platform. This concept then led us to create another division to focus on educational programs in 2015, the so-called Institut Ruangrupa. One of the highest goals we set at that moment was to explore how we find ways to transfer the knowledge we have in our collective, whether as individuals or the collective. How do we extract

tacit knowledge?

Within the same interest, in 2014, Serrum started to focus on examining the issues related to art education practices. Every member of Serrum has an educational background in pedagogy. Education narratives have always been rotating between curriculums, policies and systems, which we try to transform into artistic approaches, creativity, artistic participation and inspiration. The series of activities that we conduct is using the laboratory as our artistic approach in constructing a new educational platform. Collaborating with many education practitioners from students, teachers and educators to stakeholders and public audiences.

One of Serrum's methods, which we called *Pasar Ilmu* or 'Knowledge Market,' is a tool to examine how learning systems can be formed through people's needs and demands. Through *Pasar Ilmu*, we try to use the analogy of the market as a place where supply and demand meet, and to connect the people through knowledge transaction. We also considered that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can be sustained organically after the class has finished. Furthermore, it can create new connections in the society at large. Knowledge Market provides the chance for everyone to be teachers and students. Equality is the core value in this process. Through this method of sharing and exchanging knowledge, we consider that collective is school. Working together as a collective has realized a learning space for everyone, not only the wider public, but also for members involved in the collective itself. Then how to make this knowledge sustainable? What potential is there to connect as ecosystems that support each other in the future?

At the end of 2016, Forum Lenteng, Grafis Huru Hara, Ruangrupa and Serrum moved to a monstrous 6,000 square

meter warehouse as a shared place. Here, we challenged ourselves to work as one entity while still maintaining our own individual programs and characteristics. We shared the same passion for creating an educational platform that could be accessible for the public. From that experience, we developed another model that could be suitable for our artistic practice. We called it the Ecosystem, to point to the richness of resources that we had and also the variety of knowledge and functions that existed within our space. We were still far away from announcing this as our ideal model, but it could be adjusted in ways that could be beneficial for everyone living in the environment.

However, in 2018, there was another move to a new place. This time, we acquired the land together and by doing so, we are open to another possibility of creating a sustainable program. Learning from this working experience, we outlined a knowledge sharing platform for everyone interested in the practice of similar approaches. We decided to create an educational platform with a new name, *Gudskul: Studi Kolektif dan Ekosistem Seni Rupa Kontemporer* (Contemporary Art Collective Studies and Ecosystem) which operates by using any resources available from the collectives within it: people, programs, hardware, time, and money. We have published a regular, one-year-long program which is conceived as a space for participants to work collaboratively as a collective on experimentations and simulations. To achieve this, Gudskul employs a series of experiential learning processes using face-to-face meetings, studio work, field trips, internships, and residencies as our methods.

Participants are selected through an open application process, sending their portfolios and filling out a form that includes several questions to give us a picture of their interest in collective practice. After that, we interview them,

either in person or online. From the 30 applicants that registered for the first session, we selected 15 participants from different cities across Indonesia, including Jakarta, Majalengka, Bandung, Bogor, Bekasi, Medan, Pontianak, Surabaya, and Makassar. Since we develop via a non-profit working model, there is a need to think about different methods of support to keep this program running smoothly. We have initiated a financial plan inspired by a *lumbung* (rice barn) economy model where resources are stored so they can then be distributed proportionally to each collective based on their different needs. Resources from each collective are gathered in a variety of forms—funds, programs, equipment, even books—and redistributed to each collective in the Ecosystem.

The platform itself not only acts as a program but serves a bigger role as a collective framework. It still carries the idea of the ecosystem. The vitality of its networks as resources in our collective practice is attained through artistic exchanges, residencies, symposiums, and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collective economic models. Also, coming from different collectives, there are many educational programs—we try to be efficient by merging some of these under Gudskul programs. Gudskul might also be a good response to the question of ‘membership’ of our collective(s), which is often raised by other people, and which we can never be answered because we have no such thing as ‘membership.’ We dedicate our time and space to hanging out—or what we famously call *nongkrong*—with people who can and want to work together with us. By involving the participants in our programs at the Ecosystem, we can simulate the time and value of *nongkrong*, while becoming closer to be a part of a bigger ecosystem.

While reflecting through these phases of change, it gives

us perspective on how we try to find a new role, function, character, and also a strategy for sustainability. We are reminded that the spirit of learning and sharing is always present in collective practice. Instead of following the concept of the modern 'school' where we are taught to always compete with one another, using the collective as a basis of learning practice can help us understand the concepts of togetherness and collaboration.

«뷔로 데 트랑스미시옹(The Bureau de Transmissions)»의 사례 연구, 혹은 불확실성의 가치에 대한 사유

아나스타시아 미투시나

Mohammad Gatot Pringgotono
Director, Gudskul

Mohammad Gatot (MG) Pringgotono is a founder of Serrum. Serrum (Share Room) is an art collective that focuses on educational issues. As an artist, MG was involved in many exhibitions and art projects inside and out of the country, some of which include: *Super Danish Fantasy*, Digital Interactive Art Space, Copenhagen; Following National Gallery of Indonesia, Jakarta; *New Order, OK, Festival Video*, Jakarta. In 2016, he received the award for "Tempo Metro Figure 2016" from *Tempo Magazine*. He is now working as a headmaster at Gudskul (Collective and Contemporary Art Ecosystem Studies), while running the STUFFO / labs project which is active in practical issues and independent and urban ecology.

Angga Wijaya
Subject Coordinator, Gudskul

Angga Wijaya works collectively with Serrum. Serrum (Share Room) is an art collective that focuses on educational issues. Serrum creates art and education laboratories through collaborative and participatory work. Through democratic education, Serrum tries to offer ideas and artistic equality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At Gudskul (Collective and Contemporary Art Ecosystem Studies), Angga teaches subjects to the Collective Arts Review, mapping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art practices. Angga also initiated an art project with curatorial work covering research about issues around the social and cultural sphere.

The *Bureau des Transmissions* Case, or Reflections on the Values of Uncertainty

Anastasia Mityushina